

# 문화·관광 품격도시 광양의 미래입니다

광양시가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 나서면서 전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도립미술관·예술고 2018년 오픈...내년엔 영화관 개관도

### 마리나 조성·백운산 4대계곡 명소화 등 인프라 구축 박차

◇오는 2018년 전남도립미술관·동부권 예술고 동시 오픈=올해 유치한 전남도립미술관과 동부권 예술고를 중심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도시에 양질의 '문화' 인력 등을 수혈할 수 있게 대 경제와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한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갖추게 됐다.

지난 7월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이 광양으로 확정됐으며, 부지면적 1만7465㎡, 연면적 1200㎡ 규모로 400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완공된다.

광양 커뮤니티센터에 2018년 개교 예정인 가정 '장의 예술고(전남 동부권 예술고)'는 글로벌 예술인 양성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광양 사라실 예술촌'은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중마동과 금호동에는 9개관 750석 규모의 영화관도 내년 개관 예정이다.

시는 경전선의 폐선 부지를 활용해 자전거도로와 데마 꽃길, 아름드리 예술거리, 생태녹지관광길, 철조각 공원 등도 조성해 도립미술관과 연계할 계획이다.

◇백운산, 섬진강, 도심권 등 3개 축으로 관광인프라 확충=백운산권역은 치유 및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해 총

80억원을 투입하고, 2017년부터 가족공원과 힐링 숲터, 생태 탐방로, 수변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림치유, 산림체험, 산림레포츠, 산림문화가 공존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2020년까지 1873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진행중이다.

섬진강권역은 해양레저 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섬진강 끝자락인 망덕포구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망덕포구 및 백운대간 종점 관광명소화(3단계)사업'을 추진중이다.

망덕산~천왕산 출렁다리외 강변 산책로, 해상보도교, 배알도 수변공원 데크설치 사업 등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또 동서통합시대 협력사업인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으로 오는 2017년부터 섬진강변 일원에 옛 나루터를 복원하고, 강변숲터, 래프팅장, 강(江)수요장,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

내년부터는 섬진강 하구인 망덕포구 일원에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광양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망덕포구를 해양레저터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도심권역은 볼거리와 체험시설 위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 4번째 장대교량인 이순신대교에 조



망과 레저형 휴게공간인 '주탑 전망대'를 설치한다.

10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광양 LFS퀘어'에는 영화관(7개관 1065석)과 쇼펍센터,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는 등 전남 동부권 최대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과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유 문화재와 연계한 지역축제 관광자원화 박차=광양시는 지역 내 보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중이다. 시는 내년부터 이웃과 내가 살아갈 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민이 보고 느끼는 우리 문화유산 바로알기' 역사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가 있는 유당공원을 살아 숨 쉬는 문화

공원으로 재정비하고, 중흥사의 산식각과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등을 보수 정비해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되살리기로 했다.

특히 남도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광양매화축제'를 통해 하동군과 광양시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하는 '용지 큰 줄다리기' 등 영호남 화합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사봉 철쭉축제(4월)', '섬진강 문화축제(9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10월)도 유명가수 초청 등의 공연을 지양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힐링 축제로 재편할 방침이다.

신태욱 광양시 부시장은 "관광시장 트렌드가 보는 관점에서 체험관광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인프라 확충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폐철도 부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로

### 국도부 시험사업 선정

광양시의 경전선 폐 철도부지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광양시는 24일 "국도교통부가 시행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시험사업'에 '광양을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 융성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광양을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광양을 세풍리 동일터널에서 사곡리 사라실 예술촌까지 7.0km(15만 2000㎡)의 철도폐선 부지를 활용해 문화, 예술, 생태, 관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영·호남 8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관으로 구성된 행정

협의회를 꾸려 공동 대응하는 등 사업지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시는 지난 7월 17일 제정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지난 9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시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내년 초부터 광양을 세풍리 동일터널에서 광양장례식장까지 3.4km 구간을 자전거도로와 데마꽃길을 조성하고, 광양장례식장에서 유당공원 사거리까지 1.3km 구간에는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예술 데마 거리를 만든다.

유당공원 사거리에서 목성지구까지 0.9km는 공원, 목성지구에서 동천교, 상고터널, 사라실 예술촌까지 1.6km는 아트경관터널과 힐링 산책길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문화예술회관 입구 골목길 벽면에 이순신 장군 물고기 등 이색적인 벽화가 그려져 있다.

## 문화향기 가득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 향교길 벽화사업 오늘 준공

광양문화예술회관 입구 향교길이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로 꾸며져 눈길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오는 25일 광양 향교길에서 광양미술협회가 주관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벽화사업의 준공식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벽화사업은 지난 7월 광양시 공사사업에 광양미술협회가 선정돼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평면작업과 다양한 작품을 설치하는 설치작업이 함께 진행됐다.

골목길 일대 벽면에는 백운산의 사계를 비롯한 이순신 대교와 이순신장군 물고기 등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옥룡사지 동백술 옹달샘 등 다양한 광양의 이야기를 담은 서각작품들도 설치돼 있다.

또 도자기로 탄생한 77명의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은 '광양 in 광양'이란 주제로 벽돌담과 어우러져 은은한 분위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그림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도 마련됐다.

페타일을 이용해 작업한 타일 작품은 광양의 매화, 감, 밤 등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설치 작업 중에서도 다양한 캐릭터, 물고기, 꼬마장승은 광양제철중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져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이번 벽화사업을 주관한 이희경 광양미술협회 지부장은 "주로 설치작업으로 표현된 이번 벽화작업은 내 것 위에 우리 것을 공유했던 문화의 공간이기를 바라는 광양미술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전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백운산 치유의 숲' 이달말 착공

### 100억 투입 2018년 개장

광양시는 24일 "백운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복합휴양형 치유공간인 '백운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착공하는 백운산 치유의 숲은 백운산의 산·물·꽃을 이르는 산수화(山水

花). 매실, 도선선차, 고로쇠 수액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오감체험을 통해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장소로 꾸며진다.

광양시는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5만㎡ 산림에 치유 숲길과 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마당, 산림욕제조장, 풍욕장, 일광욕장 등 산림 치유시설 및 기타 지원 시설 등을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하고

2018년 개장할 예정이다.

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존 백운산 자연휴양림,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한 복합휴양형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치유의 숲 조성과 함께 백운산 일원을 산림문화·휴양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2016 광주일보 스키캠프

2016년 1월 27일(수) ~ 28일(목) 무주리조트

**모집대상** : 초·중·고등학생  
**참가비용** : 195,000원  
**제공사항** : 숙박(가족호텔 1박), 3식 제공, 스키렌탈, 스키강습 2회, 리프트이용권(후야권, 오전권), 스키장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왕복차량

※ 일반부 : 별도 문의

1월 27일(수)	1월 28일(목)
08:00~08:20	06:30~
08:20~11:30	07:30~08:30
11:30~12:00	08:30~12:30
12:00~13:00	12:30~13:00
13:00~17:30	13:00~16:30
17:30~19:00	16:30~
19:00~21:00	
22:00~	

※ 스키복, 보드 렌탈시 본인부담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투어넷 여행사

문의 | 062-225-2544, 062-220-0555

1월 27일(수) 출발

1월 28일(목) 귀가 / 세면

즐거움 아침식사

장비대여 / 스키강습(리프트포함)

장비반납 / 점심식사

인원 점검 후 출발

귀가